

# “한국만 봉?”… 日·인도선 외부결제 되고 부가세 면제

〈구글〉

〈애플〉

구글, 국내 시장에서 외부결제 금지  
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33% 징수  
방통위 실태점검, 사실조사로 전환

구글과 애플이 한국에 대해 차별 조치에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최근 일본이나 인도 등에서 스마트폰용 앱 배포 서비스를 통한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는 지난 6월부터 ‘아웃링크’ 등 외부 결제를 금지하고 인앱결제나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만 허용해 한국을 다른 나라와 차별하고 있다.

또한 애플은 앱스토어에 입점된 국내 개발사들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를 30%를 넘긴 33%를 징수한 반면, 국내에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해외 개발사에 대해서는 30%의 수수료를 징수해 역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넷판은 2일 구글이 일본, 인도 등지에서 스마트폰용 앱 배포 서비스를 통한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국 시장에서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인앱결제 시스템 사



미국 구글 본사의 모습.

/뉴시스

용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과 정반대의 행보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구글 플레이’에는 기존 구글의 결제 시스템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신용카드 등 외부 기업의 결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는 별도의 ‘시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게임 이외의 앱을 제공하는 개발자로 한정한다. 구글은 기존에 연 수익 100만 달러를 버는 개발자에게는 매출액의 15%를 수수료로 받고 있었지만,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수수료율은 11%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일반 개발자는 수수료율 30%를 적용받고 있었지만 외부 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수수료율을 낮춰 26%를 적용

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유럽 구글플레이의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을 허용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구글이 한국을 대할 때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조치로 관심을 모은다. 국내에서는 제도 상으로 앱마켓 운영자가 자사 결제시스템 이용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지만, 구글은 오히려 이를 무력화시켰다.

구글은 지난 4월 1일 외부 결제를 안내하는 웹페이지 아웃링크를 삭제하도록 앱 개발 기업에 알렸으며, 6월 1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으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지난 7월 카카오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방침에 반기를 들고 카카오 이용자들을 상

대로 외부 결제 아웃링크를 안내했다가 구글이 카카오톡 앱의 새 버전 업데이트를 거부해 카카오가 결국 백기를 들기도 했다.

또한 애플은 앱스토어에 입점한 앱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공급가액에다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개발사들에게 30%의 수수료만 징수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이와 함께 미국 애플공정성 연대(CAF)는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서신을 최근 방통위에 보내와, 방통위에서 구글에 대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위반 여부를 더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CAF는 미국 앱 개발업체들이 모여 결성한 비영리단체로, 앱 비즈니스 시장을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고, 동시에 앱 콘텐츠 활용에 있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단체에는 스포티파이·에픽게임즈 등 60여 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CAF는 서신을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국내 콘텐츠 협회가 제기해온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위반 조사 요청에 동

의한다”며 “방통위가 법령 위반 사실을 적극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글로벌 규제 추세에 맞춰 인앱결제 대응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CAF는 “향후 한국 정부가 정당한 법 집행으로 전 세계 인앱결제 방지법 논의에서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달라”며 “한국이 남길 선례는 유럽연합 디지털 시장법과 미국 오픈마켓터법처럼 효과적인 제도를 통해 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앱마켓 시장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구글·애플 등 주요 앱 장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태점검을 최근 사실 조사로 전환했으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들 기업들에게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특정 결제 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신고를 바탕으로 이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앱 장터 사업자들을 상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 ‘우마무스메 논란’ 조계현 사과에도 냉랭

〈카카오게임즈 대표〉

불만사항에 대한 구체적 답변 남겨  
사과문 이후 이용자 반감 더욱 커져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사진)가 지난 3일 새벽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의 미흡한 운영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만에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불만은 수그러지지 않는 분위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지난 3일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공식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 따르면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의 국내 서비스에 대한 미흡한 운영으로 고객님들께 많은 불편함과 큰 실망감을 안겨 드렸다. 이에 깊이 반성하고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고 전했다.

조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이 지적한 불만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이어갔다.

우선 고객과의 소통 문제 관련 “기존 ‘건의 & 오류 게시판’을 강화해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답변 할 것”이라



며 “그렇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발사 확인을 거쳐 최대한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화지급 문제는 “현지화 과정에서 이전 일본 서비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사이게임즈 측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재화의 지급 일정이 일부 조정됐다. 총 지급 재화는 동일하다는 이유로 미숙하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적합한 양이 지급 되도록 재검토하겠다. 하지만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총액은 양사가 합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업데이트 공지가 늦어진 점에 대해 “일본 서비스에서 신경썼던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 명확히 조사한 후 향후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지화 및 알람 기능 개선에 대해서는 “사투리 현지화의 기준이 불명확해 적

절한 번역 방향을 찾지 못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내용에 몰입을 방해하는 오타가 다수 발견된 점 역시 큰 문제가 맞다”고 사과했다.

조 대표는 “이 모든 약속과 다짐에도, 이미 떨어진 신뢰는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 깊이 통감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 중인 내용들과 앞으로 업데이트 될 내용들까지 전부 다시 고객님들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회사의 업무 방식을 정비하겠다”며 “모든 담당자에 전면적인 재교육을 통해 서비스의 근본적인 쇄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조 대표 사과문… 이용자 비판 고조  
하지만 조 대표의 사과문 게재 이후 오히려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의 반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분위기다.

이용자들은 ▲새벽 3시에 사과문을 올린 점 ▲유저가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 ▲우마무스메 담당부서 및 담당자 후속 조치 ▲사이게임즈 타 ▲근거자료 등 카카오게임즈와의 협의, 간담회 진행을 주문하고 나섰다.

/최빛나 기자 vitna@

## KT, ‘스마트메시지 플러스’ 대상 확대

번거로운 과정의 가입 절차 개선

KT가 종합 메시징 서비스인 ‘KT 스마트메시지 플러스’를 개인 고객 대상으로 확대한다.

KT는 ‘KT 스마트메시지 플러스’를

개인 고객 대상으로도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KT는 이번 개편을 통해 개인 명의로도 ‘KT 스마트메시지 플러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

는 프리랜서나 투잡족도 ‘KT 스마트메시지 플러스’를 통한 다양한 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입 절차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별도의 증빙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KT 스마트메시지 플러스’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채윤정 기자



SKT와 SK오앤에스 구성원들이 SKT 분당사옥에 있는 네트워크 관리 센터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습. /SKT

## 이통사들, 추석 대비 통신 품질관리 만전

SKT, ‘특별 소통 상황실’ 운영  
KT, 전도 위험 시설 점검 완료  
LGU+, ‘준비단계’ 비상레벨 발령

이동통신사들이 추석 연휴에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 품질 집중 관리에 나선다.

SK텔레콤이 추석 연휴를 앞둔 8일부터 12일까지 특별 소통 상황실을 운영하고, 전국적으로 일평균 1200여 명의 자회사·관계사·협력사 전문인력을 배치해 통신 서비스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

SKT는 전국적으로 이동통신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기차역, 버스 터미널,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변화가 등을 중심으로 5G 및 LTE 기지국 용량을 증설했다. 국지적 데이터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 이동통신 품질과 고객들이 귀성·귀경길에 많이 활용하는 티맵(TMAP) 서비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SKT는 고속도로에서 연휴 전날인 8일 오후 귀성길, 추석 당일 귀경길 가장 많은 트래픽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사전 품질점검 및 서비스 최적화 작업

을 마쳤다.

KT는 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의 북상을 대비하고 추석 연휴 기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일부터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KT는 태풍과 호우로 인한 통신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저지대 침수 예방 조치, 도서지역 축전지 용량 증설, 전도 위험 시설 점검을 지난 3일 완료했다.

KT는 이동식 기지국, 발전차, 배풍기, 양수기 등 긴급 복구용 장비를 피해 예상지역으로 전진 배치했으며, KT 과천 관제센터와 광역본부에 특별 상황실을 4일부터 13일까지 운영하고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복구 물자를 신속히 전달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추석을 앞두고 한반도에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힌남노’에 대비해 네트워크 특별 점검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태풍 ‘힌남노’의 북상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준비 단계’ 비상레벨을 발령했다.

/채윤정 기자